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본 현대 우크라이나 국가의 존재 문제에 대한 역사적 관점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496-2-10>

안드리 크라스노존,
교육학 박사(역사교육), 교수,
우크라이나 남부 우신스키 국립사범대학, 우크라이나, 오테사
Email: ahmar.and@gmail.com
ORCID <https://orcid.org/0000-0002-2215-8429>

국문초록. 이 글은 역사 서술에서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민족의 정체성 문제, 특히 동슬라브인의 역사 속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차지하는 위치 문제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고, 유럽의 국가로서 유럽지향적인 국가이다. 우크라이나의 독자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유라시아' 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대륙은 유럽의 포르투갈과 아시아의 러시아연방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연결된 거대한 대륙을 뜻한다. 유라시아 대륙에 인도까지 포함하여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한다. 지리적인 특징으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륙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통합을 목표로 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과 제도적 개혁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과의 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과 국제 사회의 지원을 통해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유럽 대륙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해 왔고 문화적, 정치적, 지리적 등 면에서 EU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유럽의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가치와 다양성 존중하고 존중하며 국가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의 통합을 택하게 되었고, 이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신중하고 전략적인 선택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도전과제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

주제어: 우크라이나, 지리적 위치, 우크라이나 역사, 유럽 국가, 문화적 다양성, 통합

UKRAINE IS A EUROPEAN COUNTRY IN THE EURASIAN SPACE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496-2-10>

Krasnozhon Andrii,

*Doctor of Historical Sciences, Professor, Rector,
The State institution "South Ukrainian National Pedagogical University
named after K.D. Ushinsky"*

Ukraine, Odessa,

E-mail: ahmar.and@gmail.com

ORCID: <https://orcid.org/0000-0002-2215-8429>

Annotation.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trace in retrospect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s of those events that are stirring up the country today, to find the historical basis of our turbulent and seemingly unexpected modern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Due to its variegated climatic zoning, the Ukrainian territory will turn into a zone of "regular instability" for a long time, which can be compared to the transit corridor of Eurasia. For many millennia, a zone of contacts and conflicts of a wide variety of civilizations, and not just neighboring, well-acquainted peoples, has formed here. The zoning of the Ukraine's geographical territory includes the forest-steppe and steppe zone – the Great Eurasian Steppe. This geography shaped the history of Ukraine because not only the steppe, but also the forest-steppe is tied to the territory of our country. The Northern part of Ukraine covers a forest massif of the European range. These geographical zones divide the territory of Ukraine from North to South, adding the sea coast, which has been playing a key role in contacts with European civilization for the last 2500 thousand years. Such a geoclimatic transition provided the Ukrainian lands with a very colourful picture of historical events the manifestation of which was the constant communication of various communities that migrated in certain directions with their own special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And all these waves of migration poured out for thousands of years on a rather narrow platform of Eastern European spaces which are now called Ukraine. The Black Sea and the Ukraine's access to the Black Sea coast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tacts with the historical centres of the European civilization. This allows Ukraine to maintain cultural and trade contacts with Egypt, Jerusalem, Greece, Rome and medieval Europe. In the second half of the third millennium B.C., the climatic changes were again taking place on the territory of Ukraine. The steppe was significantly moistened, and the black soil regions of Central Ukraine, which were previously suitable for field farming, were becoming

overgrown with forests. Due to the afore-mentioned facts, the first nomads in its history – representatives of the so-called pit archaeological culture – invaded the land of the present-day Ukraine from the East. The “wild steppe” of Ukraine turned out to be not so wild anymore. The Scythians were not the only people living in the Black Sea region in ancient times. It became clear that there was a real “passage yard”. The great resettlement of peoples in the Ukrainian lands was clearly manifested in the extraordinary movement of nomadic peoples, which the steppe “generator” began to demonstrate. If the Scythians stayed in the Black Sea region for a thousand years, the Sarmatians stayed there for six hundred, the Huns – for fifty. And after them, Avars, Bulgarians, Magyars, Pechenegs, Turks, Polovtsians, and, finally, Tatar-Mongols began to pour out in a stream, almost without stopping. The elements of a developed urban civilization were characteristic of the Eurasian steppe. Hundreds of steppe cities are known, founded by nomadic nobility at different times, with all the signs of urban infrastructure: stone construction, craft centers, ports, and objects of social importance. Until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he scheme of the steppe development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island urbanism – when cities (at the mouths of rivers) turned into enclaves of settled life, the concentration of power of one or another state that considers this territory its own, and between them, as in the open sea, the life of nomads developed. The latter cities were sometimes even besieged and taken by storm – both their own (they roamed within the framework of approved “rules” with the sovereign state), and foreign ones.

Keywords: *History of Ukraine, Eurasia, archaeological cultures, antiquity, Italian colonization, Black Sea, Great Eurasian Steppe.*

이 글은 역사 서술에서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민족의 정체성 문제, 특히 동슬라브인의 역사 속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차지하는 위치 문제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우크라이나 민족담론이 러시아적 정체성인가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자적 정체성인가를 두고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역사연구와 서술은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졌다. 우크라이나 민족은 러시아제국 지배를 받았지만 러시아와 모스크바공국 기원 전에 존재했으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독자적 정체성을 가지며 특정한 영토적 범위를 가지는 독자적 민족이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우크라이나를 유라시아 대륙의 중요한 교통 허브로 만든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동서 간의 힘겨루기와 관련된 중요한 국가이다. 우크라이나 영토는 천 년 이상의 역사 동안 여러 차례

갈등과 충돌의 중심지가 되어왔다. 이 지역은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이유로 다양한 세력의 관심을 받았으며, 그 결과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영토는 유라시아 지역의 들판이자 광활한 평원으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과 세력이 이 지역을 거쳐 이동하며 정착한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은 우크라이나를 천 년 넘게 갈등과 충돌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이 지역의 들판은 '우크라이나 초원(우크라이나 스텝)' 으로 불리며, 이는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통로로 기능해왔다. 우크라이나의 평원은 유라시아 대초원의 일부로, 서쪽으로는 동유럽 평원과 연결된다. 우크라이나의 해안은 2500년 동안 흑해 지역의 중요한 교역로와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지역의 해안선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명과 국가들이 경쟁하며 지배하려 했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우크라이나 해안의 역사적 중요성은 경제, 군사, 문화적 측면에서 크게 나타난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고, 유럽의 국가로서 유럽지향적인 국가이다. 우크라이나의 독자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유라시아' 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대륙은 유럽의 포르투갈과 아시아의 러시아연방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연결된 거대한 대륙을 뜻한다. 유라시아 대륙에 인도까지 포함하여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한다. 지리적인 특징으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륙이다.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불가강 일부 지역만 유럽에 속하다. 불가강 동쪽은 아시아이고, 불가강 서쪽,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한 지역은 유럽입니다. 유럽의 지리적 중심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자카르파티아 지역에 위치해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대체로 유럽 국가로 간주된다. 반면에 우리의 이웃 국가는 러시아 영토의 대다수는 아시아에 속한다. 유라시아 지역은 터키, 아랍 국가, 인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분은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러시아를 지리적으로 유럽 국가로 간주할 수 있는가? 아니다. 러시아의 정치체제도 아시아 중시 청색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도 우리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제국주의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유라시아주의'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19 - 20세기 말에 식민지주의가 해체된 것처럼, 러시아는 '제국주의' 라는 개념 대신 '유라시아주의'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공간의 지리적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지리는 동유럽 평원의 일부를 이루는 거대한 흑토 지대를 특징으로 한다. 남쪽으로 흑해와 맞닿은 크림반도는 온화 기후를 나타낸다. 카프카스산맥, 카프카스산맥, 티벳, 히말라야산맥과 같은 산지와 타이파 같이 깊은 숲 그리고 ' 초원 지대' 라고 하는 광대한 땅이 지구 곳곳에 있다.

오래전 우크라이나 영토는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와는 매우 다른 기후와 지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는 약 1만 년 전부터 수십만 년 전까지 이어졌으며, 우크라이나의 자연 환경과 인류의 거주 환경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빙하는 매우 무거운 얼음 덩어리로서 천천히 이동하면서 지표면을 깎아내고 퇴적물을 남긴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중부 지역은 이러한 빙하의 이동으로 인해 고유한 지형이 형성되었다. 빙하가 녹으면서 형성된 거대한 빙하 호수와 강들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지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주요 강인 드네프르 강과 남부 우크라이나의 평야 지대는 빙하의 침식과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빙하가 이동하면서 모래, 자갈, 점토 등의 퇴적물을 남겼다. 이러한 퇴적물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농업 지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원전 4세기 동안 우크라이나 지역은 대체로 온화하고 습윤한 기후를 유지했다. 이러한 기후는 농업과 목축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다. 우크라이나는 북쪽의 숲지대, 중부의 대초원 지대, 남쪽의 흑해 연안으로 구분된다. 북부는 서늘하고 습윤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중부와 남부는 더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를 보였습니다. 이들 지역의 기후는 농업과 유목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 기후와 지리적 위치는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는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민족과 국가의 갈등과 정치적, 역사적 변동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어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은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났다.

빙하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지형과 기후는 크게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초원 지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크라이나의 초원 지대, 특히 드네프르강 주변 지역은 평탄한 지형과 넓은 평야가 특징이다. 이 지역은 기원전부터 유목민들에게 풍부한 목초지와 물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라시아의 ' 대초원 지대' 는 현재 우크라이나 오테스카야 주 남쪽부터 알타이 산맥을 거쳐 중국 북부까지 이어진다. 대초원 지대

뿐만 아니라 거대한 숲들도 우리 나라의 영토에 깊게 뿌리를 뒀다.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은 유럽 대륙에 속하며 숲이 우거진 지역이 많다.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특성으로는 초원과 숲 그리고 해안선은 지난 2500년 동안 유럽 문명과의 접촉하게 되었고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직접적으로 접해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있는 흑해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고, 역사적으로 그 지정학적 중요성과 유럽 문명의 중심지로 인하여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흑해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의 교차로이며,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상이한 문명이 서로 충돌하는 지역이었다. 우크라이나와 이집트, 예루살렘, 그리스, 로마 및 중세 유럽과의 문화적 및 무역적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흑해가 하는 것이다. 유럽 고대 및 중세에는 무역로와 문화를 연결하는 곳이었다. 예를 들어, 오데사 근처에서 발견된 스카라베는 고대 이집트와의 접촉을 증명한다. 또한 현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발견된 알렉산드리아 유리는 이집트와 중동과의 지속적인 문화적 및 무역적 교류를 확인하고 있다. 그리스와의 접촉에 대해서 예를들자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첫 그리스 식민지인 올비아를 언급할 수 있다. 올비아는 현대 미콜라이우 주에 위치한 그리스 식민 도시이다. 이 그리스 식민 도시는 중요한 문화적 및 무역 중심지로서 유럽과 지역 문화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로마 제국도 현대 우크라이나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로마 요새의 흔적과 로마 시대 유물들은 우크라이나가 고대 유럽 세계와 통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중세에는 키이우 루시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중요한 문화적 및 무역적 연결고리가 되었다.

우크라이나 지역은 기원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문명과 문화가 번성했던 역사적 중심지이다.

문명은 인간 사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복잡성과 조직화를 이루고, 경제, 정치, 문화, 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문명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적 전통을 통해 그 특성을 드러낸다. 문명의 발전은 주로 농업 혁명, 도시화, 기술 발전, 사회 계층화, 정부와 법률 제도의 출현 등을 포함한다.

문명은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현재도 다양한 형태로 세계 각지에서 발전하고 있다. 문명의 개념은 학문적, 철학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류

사회의 진보와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된다. 문명은 대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와 정착지를 형성하며, 이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과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진다. 도시화는 문명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동의 고대 문명은 국가와 제국의 형태로 발전하며, 대규모 건축물과 복잡한 정치, 경제 제도를 갖춘다. 이 단계에서는 문자가 사용되며, 기록과 법률 제도가 발전한다.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와 같은 고대 문명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발전했다. 이 지역은 최초의 도시와 국가, 법률 제도, 문자 등을 발전시켰다. 중동 지역의 문명은 역사적으로 발칸반도와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문명은 무역, 문화 교류, 이주 및 정복을 통해 이러한 지역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다.

비켄티 흐보이카(Vikenty Khvoika)는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한 중요한 고고학자로, 1893년에 쿠쿠테니-트리필라(Kukuteni-Trypillia) 문화를 발견하고 연구했다. 이 문화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일부 지역에서 존재했던 고대 문명이다. 쿠쿠테니-트리필라 문화의 대규모 정착지와 건축 양식은 이후 동유럽 지역에서 발견되는 슬라브족의 정착지와 유사했다. 지리적 범위는 카르파티아산맥에서 동쪽으로 드네스트르강을 건너 드니프로강에 이르렀다. 중동 문명은 이집트에서부터 발칸 반도와 카르파티아 산맥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중동 문명인 이집트와 카르파티아 산맥 사이의 무역은 고대부터 중세 시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이 두 지역 간의 무역은 주로 자원, 상품 및 기술의 교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영향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확산되었다. 쿠쿠테니-트리필라(Kukuteni-Trypillia) 문화는 주로 드네스트르 강 유역에서 발견된 고대 문화로 다양한 형태의 도자기와 세라믹 공예가 발전했다.

쿠쿠테니-트리필라 문명 당시에는 기후 변화에 따라 초원이 숲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다. 쿠쿠테니-트리필라 문명의 사람들은 주로 중부 우크라이나에서 남부 우크라이나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부 지역에서는 우사토베 문화(Усаївська археологічна культура)도 발견되었다.

우사토베 문화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루마니아, 불가리아 일부 지역에서 번성한 고대 문명이다.

그 다음 흑해 지역에는 여러 문명이 번성했으며, 이 중 하나가 바로 흑해 아나톨리 문명이다. 흑해 아나톨리 문명은 청동기 시대 초기에 위치한 문명으로, 주로 농업과 무역을 기반으로 하였다.

7세기의 우크라이나는 스키프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스키프족(Skifians)이 주로 살았던 시기로, 그들은 동유럽 스텝 지역에서 번성한 문화적 그룹이었다.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는 그리스 식민지 지배자들의 흔적도 있다. 그리스 지배자들은 흑해의 남쪽 해안에서 활동하였고, 특히 오디세우스 등의 그리스 영웅들이 이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 올비아 지역이 그리스 식민지로 유명하다. 우크라이나 영토는 그리스 식민지 뿐만이 아니라 로마제국도 흑해 지역의 일부를 점령해 지배했다.

올비아는 고대 그리스 식민지로서 흑해 지역의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그리스의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주로 곡물 수출로 유명했다. 특히 올비아는 흑해 지역의 유일한 큰 곡물 수출 항구로서,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밀과 같은 곡물을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했다.

우크라이나 영토는 델로스 동맹에도 속한 적이 있다. 델로스 동맹은 페르시아의 재습격에 대비할 것을 명분으로 하여 기원전 477년의 봄, 아테네를 맹주로 이오니아나 아이올리스 그리고 에게해의 여러 섬에 있는 폴리스가 가맹하여 결성된 동맹(제1회 아테네 해상 동맹)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가맹 각국은 군함과 수병을 제공하든가 공부금(貢賦金)으로 대납하든가 하는 의무를 졌다. 많은 가맹국은 안일을 구하여 후자를 택했으므로 결국 아테네가 이들 동맹군 자금을 사용하여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테네의 무력은 한층 더 강대해지고 후일 그 때문에 제국주의화하는 계기를 주게 된다. 즉 공부금의 사정이나 징수하는 '동맹 재무위원' 이 아테네 시민에서만 선출하도록 되어 있던 예에서도 볼 수 있듯 원래 아테네 '익찬(翼贊)' 적 체제였지만 처음에는 명칭대로 에게해 중앙 델로스 섬에 두고 있던 동맹 금고를 기원전 454년에 아테네에 옮기고서는 아테네는 이를 더욱 노골적으로 사물화(私物化)해 갔다.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사르마티아인들도 지배했다. 사르마티아인들은 고전 고대 시대의 이란족 계열 유목민들로,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후 4세기까지 번성하였다. 그들은 동부 이란어군의 분파에서 갈라져 나온 인도유럽어족의 일종인 사르마티아어로 소통했다. 고트인들도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다. 고트인은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기원한 동게르만족의 일파로, 서로마 제국의 붕괴와 뒤따른 중세 시대의 도래를 촉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민족이다. 최초의 거주지가 동부 스웨덴 지역이었던 이들은 1세기경에 발트 해안과 비스와강 유역으로 옮겨 왔다.

스칸디나비아에 남은 일파는 기트족으로 불렸고, 남하한 고트족은 슬라브족과 바스타르네인들의 뒤를 따라서 로마 제국의 변경(邊境)에까지 다다라 로마 제국의 일부를 점령하였다.

그리스 로마 민속지학자들이 사르마티아라고 알고있던 영역은 대스키타이(대부분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남부 러시아이며, 또한 몰도바 인근에 발칸반도 북동부 소규모의 영역까지)의 서부 지역과 일치하다. 그들의 전성기 시절은 기원전 100여 년 쯤으로 조사됐으며, 이 종족들은 비스와강에서 다뉴브강 하구, 볼가강의 동쪽까지 이르렀고, 흑해, 카스피해 해안가 에다가 캅카스 남쪽과 경계를 이루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훈족의 흔적도 남았다. 훈족(族)은 4-6세기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에 존재하던 민족으로, 튀르크 계열로 추정되는 유목민족이다. 유럽의 전승에 따르면, 훈족들은 당시에 스키타아라고 알려진 지역의 일부였던 볼가강 동쪽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처음 기록되었다. 훈족의 정착은 인도이란인 계열 민족인 알라니족들의 서쪽으로 이주에도 관련이 있다. 370년에, 훈족들은 볼가강에 이르렀고, 로마 제국의 국경 밖에 살고 있던 고트족과 다른 게르만족들을 정복하고, 많은 게르만족들을 로마 영토로 도망치게 한, 이들은 430년에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유럽에 거대한 영토를 세웠다.

아바르족, 마자르인들은 흑해의 북쪽인 우크라이나 초원을 맴돌다가, 유목생활에 유리한 지역을 발견했다. 그곳은 카르파티아 산맥과 도나우 강 사이에 위치한 헝가리 대평원이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페체네그인도 살았다. 흑해 북쪽 스텝 지역 연안에 살던 튀르크 계열의 유목민족이다. 페체네그인의 기원은 튀르크 계열로 보이는데 남서 유라시아의 정착했다.

폴로비치 동유럽 평원을 확보했던 민족이었다. 그들이 차지하는 광대한 유라시아의 초원의 지역으로 뻗어갔으며, 아랄해의 북쪽 지역과 서쪽으로 흑해 북쪽 지역(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남서부 러시아)에 뻗어나가서 유목 지역(테쉬트 이 킵차크)을 발견했다.

유라시아 평원은 광대한 초원 지역으로,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문명과 민족이 공존하고 교류해온 중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특히 유목민족의 활동 무대였으며, 그들의 이동성과 교역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키이우 루시는 초기 중세 국가로서 988년에 볼로디미르 공작이 도입한 기독교를 통해 유럽과 통합된 국가이다. 기독교는 로마제국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김으로써 확장되었고 키이우 루시가 유럽 공동체에 문화적으로 통합되는 데 기여했다.

키이우 루시 동방 정교회를 국교로 채택하였으며, 이는 키이우 루시의 문화와 종교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키이우 루시는 비잔티움 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동방 정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키이우 루시 통치자 야로슬라프 현명왕 키이우 루시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그는 법전을 정비하고, 키이우를 중세 유럽의 주요 문화와 교육 중심지로 발전시켰다. 야로슬라프 현명왕은 키이우 루시를 통치하며 다양한 유럽 국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한 중요한 지도자였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키이우 루시는 동유럽에서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로 발전했다. 야로슬라프 현명왕은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통해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키이우 루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야로슬라프 현명왕은 자신의 자녀들을 유럽의 여러 왕가와 결혼시켜 강력한 외교 동맹을 맺었다. 이를 통해 키이우 루시의 정치적 안정과 외교적 위상을 강화했다. 야로슬라프는 유럽의 여러 국가와 외교 관계를 구축하고, 사절단을 파견하여 외교적 관계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키이우 루시는 유럽의 정치와 무역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야로슬라프 현명왕은 키이우 루시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하여 국가의 통합을 강화했다. 그는 지방 영주들의 권력을 견제하고,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야로슬라프 현명왕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키이우 루시를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주요 왕가와의 혼인 동맹을 통해 키이우 루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고, 그의 후손들은 여러 유럽 왕가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야로슬라프의 정책과 업적은 키이우 루시를 중세 유럽의 중요한 강국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키이우 루시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야로슬라프 현명왕의 사후, 키이우 루시는 십자군 전쟁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몇 가지 중요한 변화와 영향을 경험했다.

키이우 루시는 십자군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인해 유럽과 중동의 정치적 지형이 변화하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십자군 전쟁은 동서 간의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십자군들이 동방으로 향하면서 다양한 동방 물품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었고, 이는 키이우 루시의 무역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유럽과 중동 간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졌다. 키이우 루시는 이러한 문화적 교류의 영향을 받아 유럽과 동방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문화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할리치의 다닐로는 중세 동유럽의 중요한 인물로, 갈리치아-볼히니아 왕국의 왕이자, 키이우 루시 분열 이후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수행했다. 다닐로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서부와

폴란드 남동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통치하였으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서방과의 외교 관계를 확장했다. 할리치의 다닐로는 갈리치아와 볼히니아 지역을 통합하고, 주변의 적들과 싸워 자신의 통치권을 확립했다.

할리치의 다닐로는 갈리치아-볼히니아 왕국을 세우고, 키이우 루시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역의 정치적 중심지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루스의 여러 공국들과 연합하여 몽골의 위협에 대응했다. 다닐로는 유럽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서방과의 연대를 통해 몽골의 위협에 대응하려 했으며, 로마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받아 유럽에서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한다. 1240년은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중요한 해이다. 이 해에는 몽골 제국이 키이우를 침략하여 도시를 함락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했다.

그 앞서 1223년은 타타르-몽골 제국의 키이우 루시 지역에 대한 첫 대규모 침략이 시작된 해로, 유럽과 아시아 간의 중요한 역사적 교차점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칼카 강 전투이다. 이 전투는 몽골 제국과 키이우 루시를 포함한 동유럽 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졌으며, 동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주된다.

1245년의 협상에서 다닐로는 몽골 제국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공물을 바치는 대가로 공국의 자치권을 인정받았다. 할리치-볼히니아 공국의 자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서방과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려 했다. 그는 몽골 제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교황청과의 협력을 모색했다. 1254년, 다닐로는 교황 인노첸시오 4세와 협상하여 교황청의 승인과 지지를 받기로 합의했다.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다닐로에게 '루테니아의 왕'이라는 칭호와 왕관을 수여했다. 하지만 다닐로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1264년, 할리치-볼히니아 공국의 다닐로 할리츠키는 사망했다.

8세기와 9세기에 걸쳐 크림 반도는 다양한 세력이 교차하며 지배했던 지역으로, 이탈리아의 상인들과 해상 세력이 일부 식민지를 건설했던 중요한 지점이었다. 그후 킬리아가 형성된다. 킬리아는 두나우 강 삼각주 북쪽에 위치한 중요한 항구 도시이다. 이 도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여러 세력 간의 갈등과 교류의 중심지였다. 킬리아는 두나우 강을 통해 흑해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주요 무역로의 거점이었다.

남부 지역의 아케르만성도 마찬가지로 드니스트로 강 어귀에 위치하여 중요한 군사 및 상업 중심지 역할을 했다. 킬리아와 아케르만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이탈리아 상인들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케페는 그리스 식민지로 시작해, 이후 중세와 근세에

결쳐 이탈리아 상인들에 의해 중요한 상업 중심지로 발전했다. 케페 같은 경우, 이탈리아 상인들이 몽골 제국의 칸들로부터 직접 땅을 구입하여 상업 활동을 전개했던 중요한 사례이다. 흑해 연안의 그리스 식민지들은 다양한 상업 활동을 통해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흑해 연안 지역에는 비잔틴 제국의 후계 국가인 니케아 제국과 라틴 제국 사이에 체결된 평화 조약인 님파이움 조약이 체결되었다.

라틴 제국 시기에는 흑해 연안의 주요 도시와 항구가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을 더했다. 이들 도시는 라틴 제국의 통제 하에 상업 활동과 군사적 방어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흑해 지역은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주요 식민지였다.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흑해에서의 상업적 지배권을 두고 끊임없이 경쟁했다. 이들 공화국 간의 경쟁은 상업적 특권을 둘러싼 경제적 갈등뿐만 아니라, 때로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식민지 당시에는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주로 라틴계, 그리스계, 유대계 교민들을 식민지 지역에 거주시켰다.

중세 시대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헝가리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접촉은 문화적 교류와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을 촉진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갈리치아-볼히니아라는 나라도 있었다.

당시 리투아니아와 타타르 사이에 여러 차례의 군사 충돌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는 1399년의 비티그스케 전투이다. 이 전투는 리투아니아 대공 비타우타스와 금환중인 타타르 제국 간의 전쟁에서 발생했다. 비티그스케 전투는 크게 세력이 강력한 타타르 군대와 리투아니아-폴란드 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졌다. 비티그스케 전투는 리투아니아-폴란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승리는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동방 영토 확장에 큰 기여를 했으며, 타타르 제국의 동유럽 영토에서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비티그스케 전투 이후, 동유럽에서의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1596년, 우크라이나에서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브레스트 유니온이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지역의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사이의 중요한 합의로, 동방 정교회의 일부 주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연합을 선언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그리스 가톨릭 교회(또는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와 주변 지역의 종교, 정치, 문화적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세 시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이 지역은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요소들이 교차하는 곳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0세기와 11세기의 초기에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아직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스만 제국은 13세기 이후에 발전하여 크림 반도와 동남 유럽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었다. 크림 반도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를 거의 300년 동안 받았다. 이 기간 동안 크림 칸국은 오스만 제국의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서, 제국의 중요한 전략적 위치와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차치 조약은 폴란드-리투아니아 공동공국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중세와 초기 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동 유럽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드네프르 강은 그 영토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 15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타타르는 리투아니아 대공국, 오스만 제국 등 강대한 이웃들에 의해 압박을 받았다. 이로 인해 타타르는 정치적으로 약화되고 영토가 줄어들었다. 몽골 타타르 사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변화를 겪었다. 이로 인해 내부적인 분열과 충돌이 증가했으며, 이는 국가의 해체와 약화로 이어졌다. 몽골 제국의 후계자들 중 일부는 이슬람교를 채택하거나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크림 반도에는 기라이 왕조는 하즈 1세가 킵차크 칸국에서 독립하여 크림 반도를 중심으로 건국한 왕조이다. 1431년에 건국되어 러시아 제국으로 인해 1783년에 몰락하였다.

크림 반도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은 기간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1475년에 오스만 제국이 크림 반도를 점령하였고, 이후로 크림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되었다. 크림 칸국의 수도는 바흐치사라이였다. 크림 반도에 대해서 역사 학자들이 언급할 때 제노바-가자리아 공화국에 대해 언급한다. 크림 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제노바-가자리아 공화국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이다. 오스만 제국군은 1453년 4월 7일에 도시 외곽에 진을 쳤다. 메메드 2세는 미리 만들어진 대포들을 힘들여 끌고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 대포들을 만든 우르반은 애초에 콘스탄티노폴리스 방어측에 먼저 이 기술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방어측이 형편없는 조건을 제시하자 공격측인 오스만 제국으로 기술을 넘겼다고 전해진다. 메메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르반의 대포는 지금까지 가장 크고 견고한 성벽이라고 알려진 이 도시의 성벽을 부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졌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은

흑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건은 흑해 지역, 특히 킬리아와 같은 중요한 항구 도시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위협을 뜻했다.

우크라이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은 헤트만국 존재했던 코자크 국가이다. 코자크 국가가 형성된 시기이며 16세기에 형성된 코자크 집단은 독립과 자유 그리고 번영을 위해 계속해서 싸우며 우크라이나 역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 독특한 집단이다. 코자크 국가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모스크바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 동맹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관계는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유럽의 이념이 우크라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했다.

코자크 국가의 쇠퇴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제국 사이의 분할은 문화적 발전을 멈추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지식인들은 유럽의 문화적 중심지와와의 접촉과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유럽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19세기의 산업화는 우크라이나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안겨주었다. 이 시기에는 중요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 우크라이나 문화와 정체성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 국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최신 기술과 아이디어의 도입을 촉진하여 우크라이나가 유럽국가라는 것임을 확인시켜주었다.

20세기에는 우크라이나는 두 차례의 참혹한 세계대전을 치르며, 홀로도모르, 탄압, 독립 투쟁과 같은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의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열망을 간직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는 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독립된 유럽 국가로서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의 현대 발전 단계는 유럽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럽과 및 대서양 구조로의 통합을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려고 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래 유럽국가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유럽문명 속에서 정립하기 유럽연합, NATO 및 기타 국제 기구와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2013-2014년의 마이단(존엄의) 혁명은 유럽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인들의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개혁을 추진하고 민주적 체도를 강화하면서 유럽 통합을 향한 길을 계속 탐색하고 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의 유럽에서의 미래를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전 단계를 거친 풍부한 역사를 가진 유럽 국가이다.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의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유럽 국가로서의 미래와 평화를 얻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희생은 우크라이나가 유럽 공동체의 한 국가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유럽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물론,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와의 인접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차이점은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면에서 나타난다. 우크라이나는 인권 보호, 민주적 가치, 법치, 안정된 민주주의의 정치체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발전 경로를 국가 정책으로 선택했다. 반면, 현대 러시아는 중앙집권적인 권력, 자유 제한, 독재체제를 포함한 권위주의적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두 나라의 다른 발전 경로와 미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결정짓는다.

역사가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의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력이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오랜 세월 동안 우크라이나는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만나는 장소로,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유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산의 성과는 과학, 예술,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 문화유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적 정체성의 중요한 측면은 문학 및 예술적 기여입니다. 우크라이나 문학, 특히 타라스 셰브첸코, 이반 프란코, 레시아 우크라인카의 작품은 민족 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럽 문화유산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예술, 음악, 건축은 또한 유럽의 경향과 스타일을 반영하며, 현지의 여건과 필요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유럽적 정체성의 또 다른 요소로 문학과 예술 분야로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 문학을 대표로 하는 타라스 셰브첸코, 이반 프란코, 레시아 우크라인카의 작품은 국민 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럽 문화 유산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예술, 음악, 건축은 또한 우리 지역의 상황과 환경을 반영하고 유럽의 세련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현대 우크라이나 문화는 유럽의 가치와 특징에 따라 발전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화가, 작가, 음악가들은 국제 프로젝트, 전시회, 페스티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문화적 교류와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유럽 지향적 국가임을 입증한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적 정체성을 확정하고자 하는 시도들로 교육과 과학을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대학과 연구 기관들은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국제 과학 프로젝트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교육과 과학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이 세계 과학 공동체에 통합되는 데 도움을 준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유럽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유럽연합과 통합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민주주의적이고 법치주의적 국가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며, 유럽의 가치와 규범을 지키고자하는 것을 확인한다. 경제 개혁, 부정 부패 방지 및 해소 등이 유럽연합과 통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유럽연합을 포함한 재정, 기술 및 정치적 지원을 제공 국제 파트너의 지원이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과의 통합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국제 공동체의 협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 개혁과 민주 제도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이 있어야 만이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회원국가 자격 요건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럽 유산의 일부이다. 현대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적 우월성을 유지하면서 이미 유럽 지향적 방향을 선택했다.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은 유럽연합과의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유럽연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개혁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혁신 정책을 통해 국가의 산업화와 현대화의 지속적인 촉진, 경제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혁신 정책은 우크라이나의 사법체계, 과학기술, 교육, 보건,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체계 개혁을 위해서는 법률과 규제의 투명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 법률과 규제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한다. 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법 집행과 사법시스템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강력한 법 집행 기관과 법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제 개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략과 단계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투명성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와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인 구조와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투자자들이 안정감 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적인 산업과 기술 분야에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사법당국 개혁은 국가의 법률적 안정성과 시민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법당국 개혁을 위해 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부패 조사 및 처벌을 위한 전문 기구를 강화하고, 사법 인력들의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적인 법률 표준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크라이나의 사법당국이 국제 사회와 연계하여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보건제의 개혁도 필요한 부분이다. 우크라이나의 보건 시스템은 금융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많은 도전 과제를 겪고 있다. 정부는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 인프라와 의료 기기 개선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의료 전문 인력의 양성과 유지를 위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의료보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론을 현대화하고, 학습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STEM 분야 강화와 같은 기술적 진보와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 개정 및 컴퓨터 교육화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 기관, 산업 및 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교사들에게는 꾸준한 전문 개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여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혁을 위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전략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 개혁을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개혁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정적, 기술적 등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지향을 표명함으로써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유럽연합은 법치주의, 인권 보호, 그리고 다양성 존중을 중시하는 정치적 체제 개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만이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에서의 입지와 인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EU)의 통합 과정에서 젊은 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젊은 세대는 미래의 리더이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체로서 다양한 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을 통해 젊은

세대는 학문적 지식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 협력 능력 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봉사 활동을 통해 젊은 세대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봉사 활동은 리더십 능력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역량을 실제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통합을 목표로 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과 제도적 개혁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과의 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과 국제 사회의 지원을 통해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유럽 대륙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해 왔고 문화적, 정치적, 지리적 등 면에서 EU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유럽의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가치와 다양성 존중하고 존중하며 국가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의 통합을 택하게 되었고, 이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신중하고 전략적인 선택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도전과제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